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세션 8, 현대 그리스도론, 파트 3, 위르겐 몰트만 , 가톨릭 및 처리 신학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8, 현대 그리스도론, 3부, 위르겐 몰트만 , 가톨릭과 과정 신학입니다.

우리는 위르겐 몰트만 과 함께 현대 그리스도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비슷한 사고방식이지만, 신에 대한 교리에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온 것은 바르트 이후의 또 다른 그리스도론적 프로젝트인 위르겐 몰트만 의 프로젝트에서 발견된다 . 몰트만은 그의 신학이 십자가 신학에 대한 그의 관심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2차 세계 대전 직후, 그와 그의 세대의 다른 생존자들이 수용소와 병원에서 강의실로 돌아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상황에서, 인용문,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관점에서, 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 신학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인용문 닫기.

그것은 그의 책, 십자가에 못 박힌 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는 이전에 중세 로마 가톨릭 신학에 대항하여 영광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십자가 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저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서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루터는 아니오, 진정한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굴욕과 겸손과 고통 등등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새로운 그리스도론과 십자가의 새로운 신학은 몰트만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인류의

절박한 외침에 대답하기 위해 발전시켰습니다. 십자가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는 오직 이 변증법적 원리일 수 있습니다.

신의 신성은 십자가의 역설에서 드러납니다. 몰트만은 , 실례합니다만, 이것을 그의 신학 전체를 지배하는 변증법적 원리로 발전시키고 해방의 새로운 기독교적 실천으로 이끅니다. 몰트만 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는 우리가 예수의 수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는 바르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데 있어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몰트만 에 따르면 바르트의 생각은 충분히 삼위일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 자신에게 미치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간의 긴장과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가야 하며, 성부 , 성자 , 성령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암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는 *patra* 의 관념을 옹호하고, *patrapassionism* , 즉 아버지의 고통을 거부 하지만 *patracompassionism* , 즉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확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여기보다 더 근본적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을 인용하면 , 아들의 수난에서 아버지 자신이 버림받는 고통을 겪습니다. 아들의 죽음에서 죽음이 하나님 자신에게 닥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버림받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버림받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아들의 죽음을 겪습니다. 따라서 몰트만은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신에게로 받아들이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를 인용한 모든 인간 역사는, 그것이 죄책과 죽음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하나님의 이 역사, 즉 삼위일체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로 통합됩니다.

이 신의 역사에서 신의 고통이 아닌 고통은 없습니다. 골고다의 역사에서 신의 죽음이 아닌 죽음은 없습니다. 몰트만 이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의미하는지는 이 맥락에서 그가 아우슈비츠를 강조해서 언급한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아우슈비츠조차도 신에 의해 받아들여져 그의 역사에 통합됩니다. 신의 분기는 역사의 모든 소동을 그 자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참된 구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구원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모든 인간 역사가 고통, 죄책, 죽음을 동반하여 이 신의 역사로 수용된다면, 그것은 또한 신의 역사의 미래, 즉 고통, 죄책, 죽음에 대한 신의 승리로 수용됩니다. 이것이 보편주의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당신은 옳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 신학자들의 명상과 신학화의 최종 결과는 인류 전체의 신격화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클라스 루이나(Klaas Ruina)는 몰트만의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그의 책은 고통과 죽음의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듯하다. 그는 고통과 죽음의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십자가 자체를 신의 존재의 핵심과 연결시킴으로써 이를 행한다.

즉, 그는 몰트만의 책 제목을 인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입니다. 그러나 루이나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질문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이라는 개념이 정말 성경적일까요?

따라서 루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을 겪으신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루터는 항상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신의 고통은 천사조차도 여기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루이나가 말합니다. 저는 루터가 이 지점에서 옳았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신에게 버림받은 대표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몰트만이 십자가를 신 자신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한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루이나의 의견 에 따르면, 몰트만은 여기서 성경의 제한된 언어를 넘어서고, 그 결과 나온 십자가 신학은 결정적인 지점에서 성경의 케리그마보다 헤겔과 더 유사한 사변적 구성입니다. 둘째, 몰트만이 십자가에 거의 전적으로 집중한 것은 부활을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몰트만이 십자가에 집중한 것이 예수의 부활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는 그의 첫 번째 주요 저서인 희망의 신학에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책인 십자가에 못 박힌 신에서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결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고난을 겪으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숨겨진 의미의 현현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서 다음 단계입니다. 십자가 에 못 박힌 하나님에 대한 몰트만의 강조는 실제 문제,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소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신 안에서의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용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몰트만이 신의 역사에 모든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비슷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관점은 성경적이기보다는 헤겔적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몰트만의 관점은 판넨베르크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종말론적이고 보편적인 신격화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인간은 제한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삶, 죽음, 부활로 받아들여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육체적으로 참여합니다. 아버지의 슬픔, 아들의 사랑, 성령의 추진력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상황에서 그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나는 인간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현실적인 신격화에 참여시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성경적 종말론보다는 헤겔적 종말론과 일치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칼케돈의 잔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처럼 보입니다. 몰트만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는 칼케돈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반면에 두 본성에 대한 교리는 그의 책인 십자가에 못 박힌 신에서 실제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은 몰트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강조함에 따라 예수의 인간성이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넨베르크의 신학보다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에 대한 의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톨릭 신학으로 넘어갑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에서 대안적 그리스도론에 대한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신학자들은, 우리가 그들을 부를 텐데, 모두 두 가지에 동의합니다. 첫째, 우리는 출발점을 인간 예수에서 찾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반복해서 보아온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매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특히 그것이 절대적인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면, 그것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에게 해당합니다. 판넨베르크는 예외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는 그의 참된 인간성을 절대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아래에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의 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그는 신일까요? 제가 방금 암시한 잠재적인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또 다른 유명한 로마 가톨릭 신학자 한스 쿡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식적인 로마 가톨릭 신학자가 아닙니다. 로마에서의 그의 갈등은 튀빙겐 대학교에서 로마 가톨릭 학생들의 교사로서 해고되는 결과를 낳았고,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하며, 개신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세속화 과정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의 옹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래된 중세적 그림과 세계관을 버리고 현대 과학에서 생겨난 그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Kung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교리의 결과를 그의 마지막 두 주요 저서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존재와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습니다. 두 저서 모두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의 인간으로 시작하여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을 선택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명시적인 그리스도론은 예수 자신의 암묵적인 그리스도론적 말씀, 행동, 고통에서 나타납니다. 사실, Kung에 따르면, 우리는 신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스도론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튀빙겐 가톨릭 신학에 대한 박사 학위를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는 독일 튀빙겐으로 가서 한스 쿡과 발터 카스퍼를 포함한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매우 슬픈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인터뷰한 모든 사람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정교회 신자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래로부터, 즉 인간 예수로부터 시작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신격의 두 번째 인격인 아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사람이 되는 칼케돈이나 성경적 그리스도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한스 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믿었던 발터 카스퍼였습니다. 제 친구는 그것에 매우 고무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정교회의 그리스도론을 실제로 믿지 않는 똑똑하고 유명한 독일 신학자들에게 매우 슬퍼했습니다.

Kung의 견해는 그리스도론의 본질과는 별개로 기능적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와 신의 관계는 계시의 범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인간의 형태로 된 신의 말씀이자 뜻입니다.

나사렛의 참된 사람 예수는 믿음에 있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입니다. 이것들은 인용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같은 예수 안에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말씀, 아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에게 기인된 선재는 그가 항상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선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태초부터 존재했으며, 하나님 자신에게 그 기초가 있습니다. 성경적 선재는 사람인 예수가 있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고, 그는 항상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하늘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존재는 신성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니아는 이것이 실제로 기능적 그리스도론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대 교회가 니케아, 에베소, 칼케돈 공의회에서 고백한 것과 일치합니까? 쿤은 답이 긍정적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공의회는 같은 본질의 형이상학적 용어인 *homoousios* 로 표현했지만, 단순히 다른 개념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옹호했던 것, 즉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은 오늘날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확고히 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언어가 진정한 성육신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Were Deus, 즉 참된 신이라는 개념은 Kuhn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점은 Kuhn의 인용문이며,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일어난 일의 요점은 신자들에게 인간의 친구인 신 자신이 이 예수 안에서 현존하고,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신의 대변자, 대리인, 대표자, 위임자로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분으로 신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신의 아들됨, 선재, 창조, 운석 충돌, 성육신에 관한 모든 진술은 당시의 신화적 또는 반신화적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알려진 부름, 제안, 요구의 독특성, 타의 추종을 불허함, 타의 추종을 불허함, 나에게 새로운 단어, 탁월함을 입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에서 나온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인간의 무조건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친 호모,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간성에 대해 Kuhn은 예수가 전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인간이었고, 인간이 되는 것의 모범이었으며, 인간 존재의 궁극적 기준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믿고, 공의회에서 가르친 진리에서 아무것도 차감되지 않으며, 우리 시대의 정신적 분위기로만 옮겨질 뿐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것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아래로부터 온 그리스도론입니다. 어떤 단계에서도 성육신이라는 개념이 예수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진술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Kuhn은 기능적 진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는 신의 힘과 지혜의 계시입니다. Kuhn의 그리스도론에서 존재론적 언어는 기능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Kuhn의 *On Being a Christian*에 대한 긴 리뷰에서, 영국의 복음주의자 Richard Baucom은 이를 일종의 순진한 성경주의라고 불렀습니다. Baucom은 신약의 그리스도론적 언어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기능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적 그리스도론은 더 많은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찰적 질문이 제기되면, 그것을 뒷받침할 본질적인 그리스도론이 요구되는 듯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 단계에서는 순진한 기능적 그리스도론으로의 회귀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가장할 수는 없습니다. 쿤은 신약성서의 그리스도론적 성찰의 성숙한 열매인 선재, 성육신, 중재, 창조가 폐기되어야 하는 신화적 사고 방식에 속한다고 선언함으로써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선입견에 맞지 않는 자료를 다루는 매우 비과학적인 방법이 아닌가? Kuhn이 자신의 견해를 고대 공의회 견해, 특히 니케아의 참된 신과 참된 인간에 대한 진술과 일치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그는 니케아 신조의 그리스도론적 진술을 부인했다고 그를 비난한 독일 주교 회의에 크게 화가 난 듯하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오, 세상에. Kuhn이 예수에 대해 위대하고 놀라운 말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이 니케아가 말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니케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가 신의 계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신의 계시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와

같은 본질의 존재론적 의미에서 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한스 쿤은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클라스 루니아를 전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깊이 존경합니다. 여기서 영혼에 호소하는 언어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고백조차도 분석과 비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이 계시적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참된 남성성을 아무런 자격 없이 거룩하고 전적으로 인간으로 해석하지만, 참된 신성은 거룩하고 전적으로 신으로 자격 없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니케아의 진짜 관심사였다. 쿤이 삼위일체를 본질적으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결국 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성을 계시적 사건과 계시적 일체성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진술을 넘어설 수 없다.

중요한 진술이지만, 본질적인 통일성보다는 경제적 통일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차렸습니다. 전반적으로, 튀빙겐에서 쿤을 인터뷰한 제 친구의 슬픔은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론은 성경적이고 따라서 칼케돈적 그리스도론에 미치지 못합니다.

칼 레이너는 매우 중요한 로마 가톨릭 인물입니다. 그는 발타자르, 쿤, 라너와 함께 20세기 후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가톨릭 신학자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칼 라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1962-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1967-71년 뮌스터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신의 은총에 대해 앙리 드 루박을 따라 은총을 초자연적인 동시에 인간 존재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또한 무료이며 무상합니다. 위대한 행위, 표적, 기사는 역사 속 예수의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독특한 사명을 가진 종말론적 예언자였다. 레이너는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견해인 도케타주의를 맹렬히 공격했다. 그의 주요 주장은 초월 철학의 틀 안에서 칼케돈적 그리스도론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불트만과 대조적으로 그는 존재론적, 즉 그리스도가 그 자체로, 신인인 것이 실존적, 즉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의 기초라고 주장했습니다. 레이너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신의 근접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속죄가 속죄뿐만 아니라 신이 세상에 개입하는 것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것들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명한 진술은 경제적 삼위일체가 임박한 삼위일체이고, 임박한 삼위일체가 경제적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기능적 삼위일체, 성경에서 운동으로 계시된 삼위일체는 보이지 않는 본질 속의 삼위일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성령의 경제적 독특성은 우리의 구원에서 실제적인 선행적 영원한 구별을 반영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합니다. 로버트 레섬은 그의 체계적 신학에서 레이너의 공리의 유효한 용도와 무효한 용도가 모두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원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적 삼위일체는 임박한 삼위일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는 충실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계시가 그가 영원히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리의 가장 빈번한 사용은 임박한 삼위일체이며 경제적 삼위일체이고 경제적 삼위일체는 임박한 삼위일체인데, 이는 사회적 삼위일체론자들이 임박한 삼위일체를 효과적으로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경제는 모든 것이며, 과정 신학의 범신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신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범신론은 그리스어로 '안' 을 뜻하는 en 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 신이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각에 경제적 삼위일체는 임박한 삼위일체입니다. 다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역사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게 하세요, 몰트만 , 판넨베르크 , 캐서린, 라쿠나, 로버트 젠슨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사회적 삼위일체론이 하듯이 삼위일체를 인간 가족과 유사한 공동체로 묘사할 때, 삼위일체의 보이지 않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 기껏해야 위협을 받고 삼신론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시청자들이 스스로 더 많이 연구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이 점을 언급하고 싶을 뿐입니다.

또 다른 것은 지난 세기 중반 이래로 로마가 명백히 포용주의적 입장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의 이름을 듣거나 복음을 믿지 않고도 예수와 그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칼 레이너는 1961년 강의에서 익명의 기독교인이라는 문구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자신들이 실제로 이미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일 뿐이며, 존재의 표면상으로는 반대하더라도 이미 익명의 기독교인이라고 썼다. 실제로 기독교인은 라너를 인용하여 익명의 기독교라는 이러한 추정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바티칸 2세에 대한 그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그들 역시 이와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했고, 이제 로마는 개방성을 유지하며 개신교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종교의 신봉자들을 익명의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들 모두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

저는 앞서 JAT 로빈슨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몰트만 처럼 기능적 접근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는 한 사람 안에 통합된 두 본성의 교리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 예수 에 대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만 말합니다 . 그는 분명히 그의 책, 그의 중요한 책에서 기능적인 그리스도론을 넘어서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책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신에게 정직하게.

네, 그의 중요한 책인 *Honest to God*에서요. 죄송합니다. 결국, 그는 성공회 교회의 주교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본질적으로가 아니라 정도만 우리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래로부터의 절대적이고 일관된 그리스도론. 과정 신학의 그리스도론. 앨버트 노스 화이트헤드와 찰스 하츠혼의 철학에서 단서를 얻은 과정 신학은 범신론적 신 개념의 전제에서 나아간다.

인용문, 신은 모든 창조물, 모든 존재 수준에서 활동합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 움직이고, 그것에 대해 일하고, 그 안에서 선의를 성취합니다. 그러나 신은 창조물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사실 세상은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신 안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고갈되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실체이지만, 항상 그 자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정통파는 신이 계시고, 그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했으며, 세상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과정 신학은 신과 세상이 상호 존재하며, 세상이 신을 필요로

하듯이 신도 세상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과정 그리스도론은 거의 없었지만, 노먼 피텐거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연하고 보편적인 활동의 초점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초점적인 현현이다. 문자적 성육신이라는 관념을 믿을 수 없고 불가능한 것으로 거부하면서, 그는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간의 상호 침투를 통한 하나님의 활력과 내주가 절정에 도달한다는 관념을 선택한다.

Pittenger의 성숙한 책은 *Christology Reconsidered* 1970입니다. 그는 첫 번째 장에서 세 가지 요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되고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지고 전적으로 인간적인 존재 안에서 만난다.

셋째, 하나님과 이 사람은 가장 완전한 상호 침투의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 피텐거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활동과 다른 사람들의 일에서 하나님의 활동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보다는 정도의 차이이다.

확실히 이것은 성육신,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따라서 기독교의 속죄 등을 부정하는 절대적으로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입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론에 대한 조사를 성육신한 신의 신화에 대한 토론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성육신에 대한 토론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The Myth of God Incarnate* 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도발적인 제목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 대중화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Michael Green이 편집한 *The Truth of God Incarnate*라는 작은 책에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영국의 존경받는 신학 및 신약학 교수 7명이 *성육신의 신화* 라는 책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성육신 교리가 사실적 진실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질 때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신이 신성한 목적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임명한 사람이었으며, 후자의 개념인 성육신한 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 인간적 삶을 사는 것은 신화적이거나 시적이며 우리에게 그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랜시스 영은 그리스도론적 칭호가 주변 문화적 배경에서 유래했으며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적 반응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기여자는 Michael Goulder입니다. 이들은 존경받는 영국 학자들입니다.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 Leslie Holden과 Don Cupid는 니케아와 칼케돈으로 이어지는 교리적 발전에 대해 논의합니다.

클라에 루니아가 우리를 대신해 평가합니다. 글쎄요, 저는 니케아와 칼케돈 문제에 대해 먼저 더 요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홀든과 큐피드는 모두 신의 성육신 신화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니케아에서 칼케돈으로의 이러한 발전을 신약성서가 역사적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과의 차이로 거부합니다.

홀든은 영감의 솟구치는 샘을 묘사하려는 경험적 언어와 이 샘을 통제된 생각의 흐름으로 바꾸는 신조적 언어를 구별합니다. 모리스 와일즈는 신학에서 신화를 쓰고, 편집자 중 한 명인 존 힉은 성육신 교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이 예수를 통해서만 적절하게 알려지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기독교 신앙의 흐름을 넘어서 인류의 전체 종교는 따라서 암묵적으로 구원의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배제됩니다.

루니아의 평가, 첫째, 이 작가들에 따르면 성육신 교리는 단순히 거부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신화라는 용어가 책 제목에 사용되었지만,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저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저자

들은 일반적으로 신약성서 기록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깊고 근거 없는 회의주의를 보였습니다.

글쎄요, 그 말이 맞는 건, 신약성서는 응답 책에서 말했듯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약성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수의 부활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신화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또한 예수의 구원론적 중요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육신이 신화라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강력하고 신이 거하시거나 신의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단순한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와 죄책감은 책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몇몇 작가들은 신약이 성육신을 가르친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저자들은 여전히 철학적 근거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작가는 예수가 매우 특별한 존재이며, 그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를 극찬하는 말로 표현하지만, 복음주의 작가들이 영국 국민에게 자유주의적이고 비판적인 사상이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을 솔직히 걱정하며 응답 책에서 확인했듯이,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진실을 거부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에 대한 오래된 신화, 그런 종류의 것들을 확실히 거부할 방식으로 공유되었습니다. 교부 및 현대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의 역사적 신학, 교부 및 현대 그리스도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저는 단지 미래 강의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체계적 신학을 성경 본문과 결합하여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끌어낼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광범위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다룰 것입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기에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그 외의 두 가지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선재, 그의 인격의 통일성, 그리고 속성의 소통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저는 다음 강의부터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8, 현대 그리스도론, 3부, 위르겐 몰트만 , 가톨릭과 과정신학 입니다 .